

“양현종, 최근 투구 인상적이지 않아” 美 매체

찰리 모튼 대신할 아시아 투수 후보 4명 양현종 포함
美 매체서 메이저리그 계약 긍정적 바라보지 않아

빅리그 진출을 노리는 양현종(32·KIA 타이거즈)에 대해 미국 현지 매체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미국 SB네이션은 4일(한국시간) 웹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찰리 모튼(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을 대신할 수 있는 아시아 리그 투수 4명을 꼽았다. 올해 웹페이지 선발 마운드의 한 축을 맡았던 모튼은 지난달 말 애틀랜타와 계약했다. SB네이션은 모튼 대체 후보로 토모유키 스가노(요미우리 자이언츠), 코헤이 아리하라(니혼햄 파이터스), 맷 무어(소프트뱅크 호크스)와 함께 네 번째 투수로 양현종을 언급했다. 매체는 “양현종은 현재 빅리그에서 뛰는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함께 대표적인 KBO리그의 투수”라고 소개했다.

이러 “양현종은 스스로 그들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는 KBO리그에서 매우 꾸준한 투수였다”고 설명했다. 양현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수확하며 큰 기록없이 좋은 성적을 내왔다. 매체는 베이스볼 아메리카의 분석을 인용, “양현종은 89~90마일의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4가지 구종을 던지는 좌완 투수다. 볼넷을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마운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계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SB네이션은 “최근 투구는 인상적이지 않다. 아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선발 또는 스윙맨이 적합하다고 봤다. 매체는 “양현종이 메이저리그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탬파베이와는 맞지 않는다. 탬파베이는 40인의 로스터가 붐비고 있다”며 “마이너리그 계약이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전남 ‘지니어스’ 전경준 감독과 2년 재계약

조직력·팀 컬러 살려낸 점·청사진 높이 평가

전남드래곤즈는 2022시즌까지 전경준 감독과 함께하기로 했다. 2020시즌 비록 플레이오프에 아쉽게 진출하지 못했지만, 몇 년간 흔들리던 수비를 다잡고 끈끈한 조직력의 전남드래곤즈 팀 컬러를 살려낸 전 감독이 보여준 전남드래곤즈의 청사진을 높이 평가하여 전남은 전경준 감독과의 재계약을 결정했다. 2019년 초 전남드래곤즈 수석코치로 부임한 전경준 감독은 2019년 7월 파비아노 감독이 성적부진으로 경질되며 감독대행으로 선임되었다. 감독대행 부임 후 리그 7승 5무 3패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리그 8위

에서 6위로 최종순위를 끌어올렸다. 전남은 대항으로서 우수한 팀을 안정화시키고 준수한 성과를 보여준 전경준 감독대행을 2019시즌 종료 직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전남은 2018시즌 강등과 2019시즌 승격 실패로 인해 줄어든 지원금만큼 추운 겨울을 맞았다. 2018시즌 강등될 때 다시 승격하기 위해 불잡은 스타플레이어들이 승격 실패로 팀을 떠나면서 전경준 감독은 새 판을 짜야만 했다. 김영욱은 바이아웃 금액으로 전남을 떠나 제주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이슬찬과 한찬희도 새로운 도전을 위

해 각 대전하나시티즌과 FC서울로 팀을 옮겼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경준 감독은 실리축구를 택했다. 코로나19로 리그 개막이 연기된 가운데 조직력을 끌어올린 전남은 ‘잔물수비’라는 찬사를 들으며 하나원큐 K리그2 2020 최소세 2위(5패)와 최소실점 2위(25실점)를 기록하였다. 2020시즌 전경준 감독이 이끈 전남드래곤즈의 리그 성적은 27경기 8승 14무 5패.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전술에 공격으로 방점을 찍을 선수의 부재로 비긴 경기가 너무 많아 아쉬운 시즌이었다. 전남드래곤즈 감독으로 2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전경준 감독, 감독 2년차



에 접어든 그가 다가오는 2021시즌에는 이번 시즌에 보여준 잔물수비에 화끈한 공격력을 더해 전남을 플레이오프 진출과 더 나아가 승격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MLB닷컴 “류현진, 올해 완벽한 시즌 치렀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또다시 좋은 자유계약 선수(F.A) 사례로 평가받았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5일(한국시간) 2020년 대형 계약들을 살펴본 후 류현진의 토론토 이적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해 4년간 8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토론토는 에이스급 투수를 얻기 위해 고심 끝에 류현진을 선택했다.

올해 12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2패 평균자책점 2.69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류현진은 토론토의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끌었고, 사이영상 후보에도 올랐다. MLB닷컴은 “올해 류현진은 완벽한 시즌을 치렀다. 좋은 성적으로 팀을 포스트시즌에 진출시켰고 사이영상 투표에서도 3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의 부상을 우려한 MLB닷컴

은 “부상 우려 속에서 올 시즌을 잘 보냈다. 류현진이 2021년에는 더 오래 건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류현진이 언제가는 블루제이스의 연구자인 토론토에서도 던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올해 토론토의 홈장인 로저스센터에서의 경기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토론토 구단은 메이저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제3구장에서 시즌을 치렀다.



뉴시스

김하성·나성범, 류현진과 한솥밥?...“토론토에 적합”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과 나성범(31·NC 다이노스)이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까. 캐나다 스포츠 매체 스포츠넷은 5

일(한국시간) ‘토론토 구단에 어울리는 국제 자유계약선수(FA)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하성, 나성범을 언급했다. 스포츠넷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갖춘 국제 FA 중 상

당수가 토론토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의 선수라면서 영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포츠넷은 “김하성은 그의 나이와 생산성 때문에 FA 시장에서 대어급 선수로 분류된다. 만 25세인 김하성은 지난해 타격에서 눈부시게 성장했고, 올해에도 기량을 유지했다”며 “김하성이 주요한 수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KBO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김하성에 대한 다른 매체의 평가도 소개했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김하성을 이번 FA 시장 전체 7위로 평가하면서 5년 4000만달러 수준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그래프닷컴 역시 김하성을 이번 겨울 FA 중 전체 8위에 올려놓고, 5년 6000만달러 수준의 계약이 가능하

고 전망했다. 스포츠넷은 “김하성의 나이가 토론토의 젊은 선수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토론토가 주전 내야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고려하면 김하성이 토론토에 매우 적합한 선수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매체는 김하성의 불리한 면도 명확화하면서 “메이저리그보다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현저하게 낮은 KBO리그에서의 성적만으로 김하성의 공격력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토론토는 좌타 거포를 원하고 있고, 나성범이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비 쪽에서 나성범의 자리를 찾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이번 오프시즌 체중 감량에 성공해 3루수로 돌아간다면, 나성범은 코너 외야수나 지명타자로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광주시체육회는 조선포드민턴팀 채희수·김다솜, 유서연·안혜원 조가 전남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전국학교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대학)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광주시체육회 제공)

조선포드민턴팀 전국 대회서 복식 금·은 수확

조선대학교 배드민턴팀이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조선포드민턴팀 채희수·김다솜, 유서연·안혜원 조가 전남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전국학교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대학)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채희수·김다솜 조는 준결승에서 부산외대 지영빈·조서영 조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또 반대편 코트에서 조선포드민턴팀 유서연·안혜원 조가 부산외대 조혜빈·정효리 조를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조선포드민턴팀 캐리 결승전을 치르는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어 결승에서 채희수·김다솜 조는 유서연·안혜원 조를 만나 세트스코어 1대 1의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마지막 세트를 가져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정기자

수원의 극적 16강...김건희 “카타르에 오래 머물래요”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2020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진출을 이끈 공격수 김건희(25)가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6일(한국시간) 구단을 통해 “박건하 감독이 새로 오신 뒤 팀이 단단해졌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뛰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올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많은 팬을 실망하게 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선 기쁨을 전하고 싶다. 최대한 오랫동안 카타르에 머물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은 지난 4일 빙셀고베(일본)와의 ACL 조별리그 조별리그 G조 4차

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김건희는 이날 선제골을 터트리며 수원의 극적인 16강행 발판을 마련했다. 수원은 빙셀고베전에서 2골 차이 이상으로 승리해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 후반 교체로 투입된 김건희의 선제골과 임상현의 페널티킥 추가골로 2-0을 만들었다. 이로써 수원은 1승2무1패(승점 5·골득실 1)가 돼 광주우원다(승점 5·골득실 0)를 제치고 조 2위가 됐다. 수원은 7일 오후 11시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일본)와 16강전을 치른다. 김미희기자

전북현대, ‘사상 첫 더블’ 안긴 조세 모라이스 감독과 작별

2년간 K리그 2회·FA컵 1회 등 3개 트로피 안겨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구단에 사상 첫 더블을 안긴 조세 모라이스 감독과 작별한다. 전북 구단은 6일 “모라이스 감독이 한국에서의 화려한 지도자 생활을 마친다”라면서 2년의 계약 기간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전북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9년 최강희 감독(상하 이선화) 후임으로 전북 지휘봉을 잡은 모라이스 감독은 두 시즌 동안 K리그1 우승 2회와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 1회 등 3개의 트로피를 안겼다. 모라이스 감독은 전북에서 85 경기를 치러 51승21무13패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북을 떠나는 모라이스 감독은 “지도자 생활 가운데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팬들이 보내준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K리그와 전북 현대에



서 얻은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구단 첫 외국인 지도자인 모라이스 감독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모라이스와 작별한 전북은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후임으로는 최강희 전 감독과 모라이스 감독을 오랜 기간 보좌할 경험을 했다”며 “팬들이 보내준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K리그와 전북 현대에 김미희기자